

특별기고



정기연  
前 영암신북초등학교교장

2019년 기해(己亥)년 황금돼지해가 시작되었다. 새해에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살며 생각하며’ 를 살펴본다.

살아 있는 생명체는 동물과 식물이 있으며 살아 있으면 숨을 쉬고 숨을 쉬는 동안은 생각하며 생각에 따라 움직이

고 변화를 한다.

동물 중에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은 뛰어난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움직이고 발전하게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진다.

생각에는 안 된다는 부정적 생각과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으로 분류되며 오늘날 인류 문명사회를 만든 것은 긍정적 생각을 한 사람들이 발명하고 연구하여 인류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따라서 항상 긍정적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생각에 성공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으며,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부정적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퇴보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며 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필자는 일 년 동안 생각하고 실천한 글을 써 왔으며 그것을 신문에 보도해 많은 사람이 공감하며 읽을 수 있게 했고 보도된 기사를 스트크랩 해 연말에 편집하여 ‘살며 생각하며’ 의 칼럼집을 만들어 선보이고 있다.

그 칼럼집에 보도된 글은 정치 경제

살며 생각하며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인생 행사로 분류했으며 지난해는 200여 편의 칼럼을 썼다.

우리는 하루 생활의 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날 한 일과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하루를 반성하는 저녁 시간에 쓴다. 보고 듣고 한 일은 삶이며 생각하고 느낀 것은 반성이고 다짐이다.

2019년 기해(己亥)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했다. 올해는 풍요(豐饒)와 행운(幸運)을 상징하는 황금돼지 해로서 부자가 되는 생각을 해야 하고 행운의 복을 받는 성공의 해가 되어야 한다.

한해의 목표가 부자와 행운의 복이라면 항상 부자가 되는 긍정적 생각을 해야 하고 행운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서 행운의 복인 성공을 기다려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된 사람의 설계도를 배워야 하며 시공간을 초월해 그 사람으로부터 부자가 되는 성공을 배우고 생각하며 실천해야 한다.

사람은 부모의 은혜를 입어 혼자 태어났지만, 어려서는 부모가 곁에서 도와주었고 성장하면서 더불어 사는 이웃의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이웃이 한 형제자매며 이웃에 거주하는 동네 사

람이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며 학연으로 맺어진 선후배 친구와 직업으로 일하며 맺어진 이웃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이웃과 멀어지면 고독하고 고독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 종말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이웃이 많고 친구도 많다는 생각을 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좋은 이웃과 친구는 내가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주면서 사는 생각과 행동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믿음의 신이 나를 도운다는 종교를 갖고 있으며 믿음의 신과 함께 사는 삶은 고독하지 않으며 믿음의 신은 나를 도와 성공의 길로 함께 해준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내가 사랑으로 이웃을 도울 생각을 하고 실천하며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실천하는 믿음 신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삶은 긍정적 생각과 실천을 하게 하여 나에게 풍요와 행운의 성공 결과를 맞이하게 한다.

내 생각이 나를 움직이고 그것이 나를 성공하게 한다. 황금돼지해를 시작하면서 풍요로운 부자가 되려는 계획을 세우고 긍정적인 좋은 생각을 실천하는 ‘살며 생각하며’가 되었으면 한다.

社說

광화문에 태극기와 촛불이 어우러지는 3·1절

2019년 기해년은 각별하다. 1919년 기미년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 된다. 3·1절은 8·15 광복절보다 더 뜻깊다 할 수도 있겠다. 광복은 일본의 패전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반면 3·1운동은 우리가 주체가 돼 세계에 대한민국의 존재를 알린 사건이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겪으면서 상처는 깊고 영광은 적었던 우리 근현대사에서 3·1운동만큼 긍지를 주는 역사도 많지 않다. 3·1운동으로 독립을 쟁취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일제 탄압이 뻗어 예상되는 속에서 범국민적으로 일어났던 저항운동인 3·1운동은 시련으로 접철된 근현대사 내내 한국인에게 용기와 희망의 원천이었다.

세계 혁명사에서 인구의 10% 이상이 참여한 사례는 3·1운동이 처음이다. 그 영향으로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그때 반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제라고 선언했다. 귀족이나 부르주아 중심의 공화제가 아닌, 일반 대중이 주도하는 민주공화제 선포는 세계에서 처음이었다.

3·1운동 100주년인 올해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기점이다. 새 100년을 영광과 번영의 세기로 만드는 게 우리 소망이다. 한국은 민주화, 산업화에 성공했다. 정치권 구태, 권력기관 적폐가 개혁 과제로 남아있으나 한국 사회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도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왔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남북으로 분단돼 있을 뿐 아니라 남한 내에서도 지역, 계층, 남녀, 이념으로 분열된 모습이 다.

새 세기를 ‘태극기’와 ‘촛불’이 함께 시작하는 장면을 상상한다. 올해 3월 1일 대한민국 민의 집결지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가 휘날리고, 촛불이 물결을 이루는 대사건 말이다. 태극기는 3·1운동의 상징이다.

태극기와 촛불의 대립 양상은 남북 분단이 해소되고 민주주의가 성숙하면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정치적 견해와 이상의 차이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도 아니다. 태극기와 촛불로 각각 상징되는 보수, 진보 진영은 실체와 구분이 분명하지도 않다. 그런 데도 둘로 통칭되는 두 집단의 반목엔 건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3·1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민족 발전의 동력을 새로이 하는 데 태극기와 촛불이따로일 수 없다. 3·1운동은 민족주의와 개화주의의 통합으로 가능했다. 올해 3·1절엔 애국·민주 시민이 민족 긍지인 독립운동을 함께 기리자.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통합의 계기로 만들려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우리가 3·1운동의 통합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고 있다면 지금쯤 광화문에는 대화합 분위기가 무르익고 국민 사이에는 3·1운동 축하 불이 한창이여야 하지 아닐까.

문재인 정부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려면 보수적 국민의 지지가 절실하다. 3·1절은 국가 재건과 사회 발전 과정에서 배제된 느낌을 갖는 보수 진영을 겨냥을 더없이 좋은 기회다.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분열 극복 계기다. 통합의 용광로가 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3·1운동 100주년을 꿈꾼다.

독자 기고

다중운집시설 화재 시 침착히 대처해야...

현대사회는 건축물의 고층화, 복잡화, 밀집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의 고층건물은 다양한 용도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의 유동인구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그만큼 예전보다 화재나 안전 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그 규모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또한 이러한 화재는 사무실 용도의 건물보다도 대형판매 및 쇼핑센터, 호텔, 영화

관, 주상복합건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건물 화재시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해 소방 출동로 확보가 곤란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등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과 전기·가스 등 화기취급이 많고 기상변화가 심한 겨울철에는 그 어느때 보다 화재발생 우려가 높다.

아울러, 12월은 올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로, 친구나 가족, 연인, 직장동료 등과 영화를 보거나 소풍을 하고 각종 모임을 갖는 등 마음이 들떠 있게 마련이어서 자칫 안전의식이 소홀해지기 쉽다.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쇼핑센터나 영화관, 고층복합건물 등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물구조를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겁을 먹게 되어 이성을 잃고 무분별한 행위를 하게 되므로 화재시에는 그 건물구조에 익숙한 사람들이 적절한 피난유도를 해야한다.

또한, 평소 피난통로의 확보와 피난유도 훈련을 철저히 실시하고 건물 내부에는 두 개 이상의 피난통로를 설치하여 유사시

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피난 유도시에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보다 가급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차분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특히, 고층건물의 엘리베이터는 연기가 통하는 굴뚝의 역할을 하게되어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금물이다.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는 어느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순 없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는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일상속에서 화재위험요인은 없는지, 각종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김용호 여수소방서장

독자 기고

안전사고 없는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바라며

2018년 한 해는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사고가 그렇듯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여 미리 살았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 한 해를 보내고 육십간지의 36번째 ‘황금 돼지’의 해인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시작이라는 자세로 과거의 각종 안전사고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도민 모두가 화재예방 실천과 안전문화를 정착해 더 이상 소중한 가족, 직장동료들의 목숨을 잃거나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나 하나쯤이야’, ‘이러면 되겠지’, ‘괜

찮겠지’라는 사고방식에서 각종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여 가족과 심지어 소방공무원까지 숨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다.

소방관서 등에서는 안전을 강조하고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생활편의주의로 생활주변에 위험요소가 많이 잠재하고 있는만큼 안전의 주체는 행정관서가 아닌 우리 개개인이 라는 명확한 인식이 뿌리박는 사회가 된다면 내 자신, 내 가족, 내 직장 동료가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다’는 속담처럼,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불조심 표어처럼 다른 사람이 바보처럼 ‘기우(杞憂)’라고 할지언정 안전에 있어서는 돌아보고 확인하는 정성이 있어야겠다.

안전은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준비했을 때만이 ‘안전’이라는 두 글자가 가정과 직장을 행복하게 지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2019년 기해년(己亥年)에는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본다.

/한선근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124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소석빌딩 5층

회장 김 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인 전광선

광고 (062)227-0083

구독료 월 10,000원

사장·편집인 이문수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 제갈대중

서울사무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1-7 에이스테크노8차 140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마음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읽는 바른신문

전남도민일보

지역기자안내

지역	직급	성명	연락처	지역	직급	성명	연락처
광안구청	국장대우	고훈석	010-9992-8212	강진	차장	전운재	010-6221-3346
광안	차장	고도경	010-3699-3804	해남	본부장	윤규진	010-2001-8078
동구	국장대우	서기만	010-4602-0708	장성	부장	정운섭	010-3640-6323
남구	기자	이유빈	010-9632-5879	무안	차장	김수형	010-3648-0281
북구	부장	김정관	010-9464-2555	영광	차장	김 진	010-9221-0000
목포	국장대우	박성태	010-3602-5869	여수	본부장	오승택	010-2080-6002
신안	국장대우	박성태	010-3602-5869	순천	본부장	오승택	010-2080-6002
나주	국장대우	김동철	010-3604-2611	광양	본부장	오승택	010-2080-6002
담양	국장대우	강종연	010-6297-7599	고흥	본부장	윤규진	010-2001-8078
곡성	부국장대우	심섭섭	010-3608-2634	함평	차장	박정오	010-5189-5639
구례	국장대우	심건식	010-4624-0005	영암	국장대우	김희선	010-3631-1617
보성	국장대우	김용욱	010-3602-8103	완도	국장대우	유대성	010-5007-5983
화순	차장	남호경	010-3624-6785	진도	부장	한길준	010-8265-8848
장흥	국장대우	김정근	010-3601-3517				